대구주보

연중 제24주일
2012.9.16.(나해) | 제1800호

| 금주의 성화

네 명의 사도들

알프레히트 뒤러의 최고 명작인 이 그림은 왼 쪽에서부터 사도 성 요한, 사도 성 베드로, 복음사가 성 마르코, 사도 성 바오로를 묘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이 그림은 '네 명의 사도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베드로 사도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으며, 나머지 세 분은 성경을 뜻하는 책이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실제 사람 크기로 그려진 네 분 성인의 표정과 자세는 놀라운 박력을 느끼게 한다.

알프레히트 뒤러
목판에 유채, 1526년
독일 알테피나코텍 미술관 소장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마르 8,27-35 참조)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명색이 제자인 우리는 오히려 편한 것만 좋아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1독서 이사 50,5-9ㄴ　**제2독서** 야고 2,14-18　**복음** 마르 8,27-35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 9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자주 성찰하고 고해합시다**

주일의 말씀

하느님의 일 – 순명

김병수 루카 신부 | 교포사목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멘붕(멘탈붕괴), 패닉 상태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 더군다나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리라는 예고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아서인지 뒤이어 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며 호되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셋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느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마르 8,35),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고, 하느님의 일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일과 하느님의 일,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일을 버리시고 하느님의 일에 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일에 순명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빛과 소금 – 평신도 신앙 칼럼

『미사의 노래』에 얽힌 사연

이동순 가이요

이인권이 직접 부른 노래로「꿈꾸는 백마강」이 대표적이지만, 그가 작곡한「카츄샤의 노래」와「바다가 육지라면」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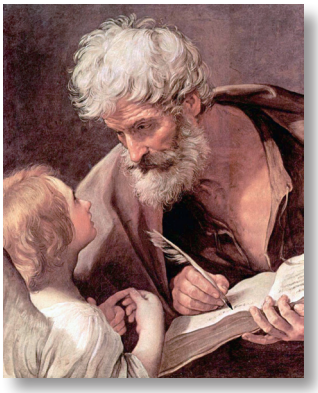
가수 이인권(李寅權, 1919~1973)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대구로 피난 내려와 살았습니다. 1950년대 초반 이인권은 계산성당 바로 맞은편 골목에 셋방을 얻어 살면서 날마다 이병주가 운영하는 오리엔트레코드사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무렵 이인권은 가수활동을 하던 아내와 함께 대구 근교의 최전방 전선으로 위문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지역이었던지는 확실치 않으나 부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포탄이 날아와 아내는 현장에서 폭사하고, 남편은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인권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혼자 텅 빈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대공연 중에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길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아내 얼굴에 가슴은 찢어질 듯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어느 새벽, 이인권은 집 바로 앞 계산성당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다니던 성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가톨릭 신자가 되어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독실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차츰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내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겨울밤, 이인권은 아내의 넋을 위로하는 한 편의 가사와 곡조를 마치 신들린 듯이 오선지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가요작품이 바로「미사의 노래」(임영일 작사, 이인권 작곡, 이인권 노래)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는 남편을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었고, 이 노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 저 멀리 니콜라이 종소리 처량한데 / 부엉새 우지마라 가슴 아프다 (1절)
가슴에 꽂아주던 카네이션 꽃잎도 / 지금은 시들어도 추억만은 새로워 / 당신의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고서 / 오늘도 불러보는 미사의 노래 (3절)

금주의 성인 사도 성 마태오

사도 성 마태오 (9월 21일)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인 마태오 성인께서는 복음서에서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본래 카파르나움의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다. 당시 세리들은 침략자인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 중 일부를 착복하였으므로 유다인들에게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다. 사도께서는 마태오 복음서를 저술하신 것으로 전해지며 후일 동방으로 가서 페르시아 또는 그 인근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다. 마태오 성인은 회계나 장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이시다.

주일 말씀으로 배우는 교리 : 연중 제24주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고백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주일 말씀

_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심과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며 부활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인정하면서도 메시아와 함께 오는 지상의 명예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고난, 즉 나보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겪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과 교리

_ 신앙 고백의 의미

'신경(信經, creed)'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믿는 신조들을 간단하게 축약한 것으로 교회가 승인하고 신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신앙고백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가톨릭교회에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두 개의 신경은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개인적인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혼자 외로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을 때나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 세례성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신경의 "저는 믿나이다"라는 말로 나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일 미사와 같은 전례적 집회에서 교회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본성적으로 활동을 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서 활동합니다.

말씀과 성사

_ 혼인성사를 통한 가정과 교회

혼인 성사는 세례 받은 두 남녀가 혼인으로 결합하고자 할 때 거행됩니다. 혼인으로 결합하는 남녀는 교회를 결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가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가정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앞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_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 복음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내는지, 그리고 신앙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번 회로 주국진 신부님의 〈주일말씀으로 배우는 교리〉를 마칩니다. 좋은 글을 써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곧 개막될 〈신앙의 해〉에 대한 연재가 시작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현장 – 안심종합사회복지관 편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구경이 힘든 장애인분들에게 나들이 기회는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설렘과 즐거움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송골송골 땀 흘리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나들이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보다 많은 추억을 만들고자 무거운 휠체어도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혹시나 이동 중에 불편해하실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 또 조심입니다. 괜히 장애인분들이 미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 힘든 기색도 감추고 밝은 미소를 보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 잔치

장애인 나들이를 함께 하신 한 자원봉사자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봉사자께서 전에도 장애인나들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후천적 장애가 생긴 후 처음으로 바깥 활동을 하는 한 장애인과 짝이 되어 활동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나들이활동을 하면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체험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가 끝날 무렵, 그 장애인분이 눈물을 흘리며 “장애를 가진 후 다시는 밖에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가기도 겁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말벗도 해드리고 활동보조도 해 드렸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봉사할 때 마다 그 감동은 늘 새로워요. 이거 중독 맞죠? 하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자원봉사자님들의 이웃사랑, 그 아름다움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대구대교구 소식

2012년 소공동체 전국 세미나

2012년 소공동체 전국 세미나가 9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주교구장 이병호(빈첸시오) 주교님의 '왜 소공동체인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교구 조재연(비오) 신부님의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 건설을 위한 제안' 사례 발표, 어린이 카페 새 세상을 여는 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최금자씨의 '어린이와 공동체의 체험 공간인 카페 까사미아'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캠프

9월 9일(일) 오전 10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가톨릭녹색환경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에너지캠프'가 열렸다. 이 날 캠프는 정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님과 고진석(이사악)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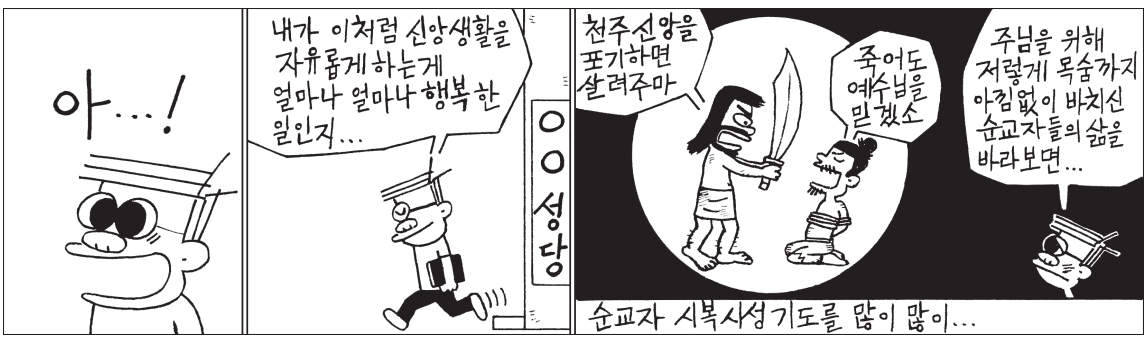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20일 목요일은 (故)서인석 바오로 신부님 7주기입니다.

- 진량본당 15주년 및 견진 _ 일시: 9.16.(일)
- 교구 하반기 사제연수 _ 일시: 9.18.(화)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견진
  _ 일시: 9.20.(목) 10:00
- 두산본당 견진 _ 일시: 9.23.(일) 10:30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섭리기도모임 (미혼여성)
일시: 9.23(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2박3일 무료치유피정 (작은예수회)
기간: 9.21(금)~23(일)
장소: 현리작은예수마을 (숙식제공)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강사: 박성구·조광택 신부 (상담/치유)
문의: 박데레사, (016)646–0583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가을피정
1차: 10.6~7, 2차: 10.13~14(토~일)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회비: 1만 원
준비물: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문의: 659–3404 / (010)3803–8973

조이플 스테이 초대
일시: 10.6(토)~7(일) (26차)
11.10(토)~11(일) (27차)
12.1(토)~2(일) (28차)
주최: 예수성심시녀회수녀원
문의: (010)9056–9005

제주 성 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기간: 10.6(토)~9(화) / 22(월)~25(목)
10.28(일)~31(수) / 11.4(일)~7(수)
장소: 제주 성 이시돌 목장 내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작은형제회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10.12(금)~14(일), 대전 목동
대상: 만 31세 이하의 남성
문의: (010)9890–8809

평창 필립보 생태마을 환경 피정
1차: 10.19(금)~21(일)
2차: 11.16(금)~18(일)
비용: 6만5천원, 주제: 지구환경살리기
문의: (033)333–8066, www.생태마을.org

거룩한 독서 (LD) 피정
4박5일: 10.24(수)~28(일)
문의: 연화리 피정의집, (054)973–4835

교육 | 모집

신앙의 해 제47기 선교대학
일시: 10.14(일)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지도: 이판석신부
주제: 누구나 쉽게 신앙을 전할 수 있다!
주관: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문의: 781–6100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100일 철야기도 봉헌 (선착순 100명)
100철야기도 기간: 10.1(월)~1.8(화)
문의: 작은예수수녀회, (010)8915–5496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10.19(금)~11.3(토) (15박 16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그리스
내측 538만 원, 발코니 598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전화문의 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 부담 장애인 그룹홈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 장애인 (30명)
문의: 721–7090
재활교사 최희승, (010)2369–3140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9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17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민족화해를 위한 월례미사	9월 22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성지후원회 월례미사	9월 22일(토) 오후 4시	한티피정의집앞 야외제대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억기(바오로) 011–514–385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와우이비인후과
수술 전문 | 중이염, 비염, 축농증 코골이, 편도선 수술
귀 전문클리닉, 보청기 상담, 장애진단
원장/전문의 이 영 호(바오로)
(전, 가톨릭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 출구
☎ 654–2052 (서부정류장 네거리 LG전자 옆)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 (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채 희 갑 (바오로)

송 월 타 올
* 인 쇄 무 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해드립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통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이준석(아녀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 성 동(리노)
www.linoclinic.com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주보 홈페이지 http://www.daegujubo.or.kr)
700-44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주보담당 053)250-3052, 3048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9.21(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주최: 정의평화위원회

밥이 되어 주세요! 제2회 7080 밥콘서트
일시: 9.22(토) 16:00 / 19:30 (2회)
장소: 앞산 대덕문화전당, 입장권: 1만원
문의: 밥밴드, (010)9577-7819
공연수익금은 지역 결식아동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전례꽃꽂이연구회 9월 월례회
일시: 9.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교육 | 모집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입문 과정: 10.14(일)
본 과정: 10.19(금)~21(일)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 9.28(금)까지 (공문참고)
문의: 250-3064 / (010)4162-5393

하반기 부자녀캠프 신청
일시: 1차 9.22~23, 2차 10.13~14
장소: 명곡 가톨릭스카우트교육원
대상: 아버지와 초4 이상 자녀들
인원: 차수당 선착순 40명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6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문의: 255-1582 (화~토 14:00 이후)

향심 기도 소개 강의 안내
일시: 9.23(일) 14:00~18:00
장소: 본리성당, 대상: 누구나
강사: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 (천주교 마산교구)
문의: (010)3577-0639

대안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오르간 전공 반주자 모집 (유급)
문의: (010)2798-0911

수성성당 50주년 맞이 문화강좌
일시: 9.24(월) 19:00 미사 후, 수성성당
제목: 이해인 수녀의 시와 삶과 기도
연주: 뮤직마운트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초크아트, POP 돌페인팅, 폼아트, 플룻, 대금, 오카리나, 우쿨렐레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관광영어: 10.5(금) 11:30
명상체조: 10.5(금) 14:00
창작사진: 10.8(월) 10:00
성가가곡: 10.8(월) 14: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제18기 뿌에리깐또레스 합창단 모집
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관광영어
시간: 매주 목요일 19:00~21:00
주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수강료: 4만 원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새빛학교 기초 영어 · 한문반 모집
영어교실: 매주 화,목 13:00 (주2회)
한문교실: 매주 화요일 15:00 (주1회)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채용

삼덕유치원 버스기사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자필)
서류마감: 9.24(월)까지
문의: 782-9380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검진 (암검진은 꼭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풍기 천제명 홍삼
(30%-10% 행사)
추석선물 할인판매
도석록(스테파노), 이옥이(실비아)
☎(053)793-5325, 010-7744-5768
- 택배 가능 -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주유소
전화 한통화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한솥도시락
대 구 ☎053)963-1188
한의대점 053)817-3114
오영숙(바울라), 장종미(아네스)
※단체주문시 대구 · 경산전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야곱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최고의 원초만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서해안 청정해역 명품 김
광천 이조맛김
성전건립기금마련 및 바자회, 성모회 · 자모회 등 각종단체 기금모음
이경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 (041)641-3838 대구지사 : (053)255-3836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건어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흔(하상바오로) 958-0009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협 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053)642-7575